

# 학계 '가을걷이' 분주

### '간다라불교미술...' 세계 석학 참가 학회마다 발표회 준비·주제도 다양

하늘은 높고 들뜬은 누렇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 10월과 11월에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학술발표회들은 불교학계에도 가을이 찾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먼저 눈에 띄는 발표회는 국제대회로 치러지는 '간다라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다.

한국불교미술학회와 한국미술사연구회 공동주최로 10월 16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문명대 동국대 교수, 이영에 경주대 교수를 비롯해 외국에서 미야지 아키라(일본 나고야대) 교수, 존 헌팅턴(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피에르 캄봉(프랑스 기메박물관) 씨 등 간다라 불교미술의 권위자들이 참가한다.

문명대 교수는 카니사카파 사리용기 윗면에 부착된 삼존불상을 통해 불상기원문제를 다룬다. 미야지 아키라 교수는 간다라 초기 불상에 인도고대조각미술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밝히고, 최초 불타상으로 추정되는 '법천권정' 부조상의 도상·교리적 의미를 해석한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속 피에르 캄봉 씨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상을 비교·연구해 발표한다. 기메박물관은 텔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내 유물 파괴로 인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유물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이다.

#### ■올가을 불교학술대회 일정

날짜	학회	대회명 (주제)	장소
10.9	불교학연구회	10월 월례발표회	청호불교문화원
10.9	한국고대사학회	제80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서울시립대
10.16~17	한국불교미술학회	간다라 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간다라불교조각의 연구 과제와 그 교류관계)	고려대 국제관
10.23	한국미술사학회	제9회 전국미술사학회(조선전기 미술의 대외교섭)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10.26	한국선학회	2004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고려 중후기 선 사상의 전개)	동국대 문화관
10.30	한국불교학회	제41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11.4~8	한국국악학회	제2회 한중 불교음악 학술회의	세종문화회관 외
11.5~6	불교미술사학회	제4회 추계학술대회	통도사성보박물관
11.5~6	한국고고학회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통일신라시대 고고학)	대전 중앙과학관
11.6	한국종교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세계 종교학의 지평과 동아시아 종교학의 역할)	서강대
11.13	불교학연구회	2004년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발표대회(화엄과 선)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11.13	한국고대사학회	제81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미정)
11.27	보조사상연구원	2004 정기학술대회	법원사

26일에는 한국선학회(회장 현각)가 '고려 중후기 선사상의 전개'를 주제로 동국대 문화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법산 스님(동국대)이 '태고보우 스님의 선교관',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나옹해근의 선사상', 김호규 씨(불교문화연구원)가 '일연 스님의 조동오위관'을 논하고, 김계천 국민대 교수는 고려 후기 사찰을 중심으로 '선의 건축조형 개념'을 조명한다.

30일에는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병래)가 동국대에서 '제41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주최한다.

최근 연구위원 57명을 위촉하며 조직을 새로이 정비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27일 서울 법원사에서 '간화선 수용 및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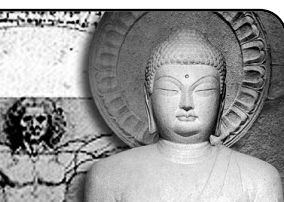
이 대회에서는 인경 스님(선상담 연구원)의 '돈오점수와 간화선 사상', 이덕진 장원전대대 교수의 '수선사의 선종과 간

화선 사상', 김방동 씨의 '여말 선초 간화선 사상' 등이 발표된다.

그밖에 11월 5·6일에는 한국고고학회가 '통일신라시대 고고학'을 주제로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제2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열고, 11월 16일에 열리는 한국종교학회(회장 김중서)의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종교교육분과의 김용표 동국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종교경험과 교육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0>



### 정견(正見)과 생명의학

현대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는 물과 더불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미량 무기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면역학의 발달로 우리의 면역계의 구성이 누구나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와 수많은 생리활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나와 너의 삶의 구성 물질은 다르지 않고 또 생명체의 특징인 개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의 구성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의 삶을 타인에게 이식한다면 면역 거부 반응에 의해서 금방 거부당한다. 요즈음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생명체 조직의 구성도 같고 그것을 인식하는 면역계의 구성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확

하게 좀 더 정점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성 물질의 하나와 하나가 관계했을 때 1+1=10, 아니 100이나 1,000도 되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현재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관계가 생명현상의 이해에 가장 중요함이 드러난다. 서양식 과학으로서의 생명의학은 구성 물질 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가면서 생명체를 단순화 시킨다. 그렇게 해서 물질요소를 찾아낸다고 해도 다른 구성 요소와 관계를 알지 못하면 찾아낸 물질의 원래 기능도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연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구성 물질들이 모여 관계함으로써

### 생명체의 생성 비밀인 '조합과 관계'는 과거·현재·미래 따로 없는 연기의 세계

히 개체성을 구분하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진전이 없다. 몇 안 되는 동일한 구성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거의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생명체를 단순히 그 구성 물질로 환원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1+1=2의 수학에 바탕을 두어 쌓아올린 과학으로는 생명 현상을 접근할 수도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다. 생명은 몇 안되는 생체 구성 물질로부터 이들의 조합(組合)과 다양한 관계(關係)를 통해 지구상의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구성 물질이나 작용 상태를 찾아내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합(組合)과 다양한 관계(關係)를 밝히는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 그 성격이나 모습은 원래의 구성물질의 모습을 지니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체계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을 향하여 역으로 피드백 작용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물질조차 예전의 모습을 지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의 세계이다.

이렇듯 계속 변화하며 다양하게 생겨나는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正見)이다. 지금 발달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의학이 정견에 바탕을 두어 생명체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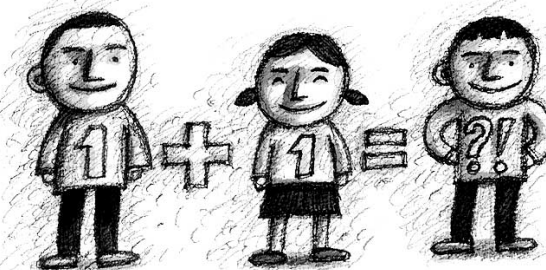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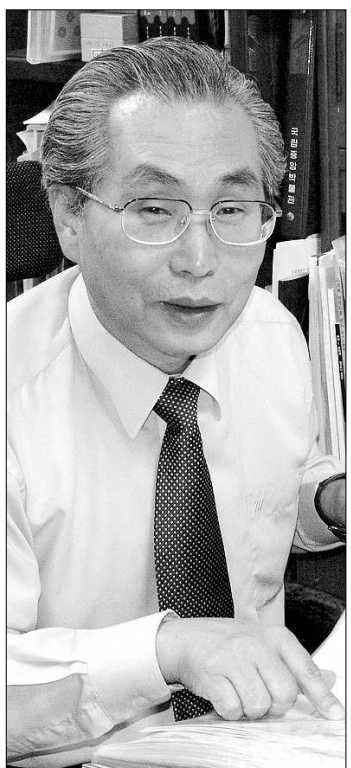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간다라 불교미술 이해할 기회 될 것”

### 인터뷰 '간다라' 국내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 문명대 교수



문명대 동국대 교수가 파키스탄 조사연구사 기록한 유물카드를 설명하고 있다.

간다라불교미술을 주제로 해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인 '간다라불교미술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한 문명대 교수를 9월 22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문명대 교수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사학자며 간다라불교미술의 권위자다. 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간다라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2년에 시작된 '파키스탄 고대 간다라 문화교류 학술조사연구(이하 파키스탄조사연구)'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1·2년차 조사가 간다라 지역 박물관과 유적지의 유물조사가 중심이었다면, 3년차에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정밀하게 연구하게 된다. 이번학술대회는 파키스탄조사연구를 중간점검하며, 외국의 간다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했다.

▲간다라 미술 연구에 관심이 큰 데?

-간다라는 불교미술의 발상지로, 우리

불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불상 연구자라면 누구나 간다라 불교미술을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다. 언젠가 간다라 불교유물과 유적을 철저히 조사해보겠다는 원을 세웠는데, 늦게나마 파키스탄조사연구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

▲간다라 불상과 우리나라 불상은 얼마나 닮았나?

-간다라의 영향이 직접 나타나는 우리나라 불상은 드물다. 서울 쪽에서 발굴된 불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간다라 불상 연구가 우리나라 불상의 초기 형태를 짐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파키스탄조사연구의 성과는?

- 라호르·페사워르·탁실라·스와트·디르바블란 등 파키스탄의 주요 박물관 5개소의 소장 유물 2000여점을 실측·촬영해서 유물카드로 기록했다. 파키스탄 박물관 소장자료를 이처럼 실측해서 기록을 남긴 건 세계에서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간다라미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또 간다라 불교미술 관련해서 발표했거나 발표될 논문이 30여편이나 된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탁실라 지역을 발굴했는데, 성과는?

-4~5세기 경의 것으로 보이는 불두와 처용탈 형태의 토제품을 발굴했다. 탈 모양 토제품이 꽤 됐는데, 이처럼 큰 탈은 처음 발굴된 것이다. 해초 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탁실라 지역에 수천 개 사원이 있었다 한다. 불상을 수십 위씩 모시는 것이 흔했기 때문에, 수단 위의 불상이 있었을 텐데 거의 도굴당하고 발굴되는 예도 흔치 않은 실정이다.

▲간다라 관련 연구 계획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집중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후학들을 위해 간다라 불교미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

박익순 기자

# 골프 카운슬러 六壬 「전국 육임학당」 수강생 모집

- www.taotemple.net -

세상이 긴박 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긴박합니다. 당장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좋은가, 나쁜가? 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해 준 문제들의 맞고 안 맞고 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문제들의 자신 있는 상담에는 **「육임」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기 전에 레방자가 물어 올 내용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결정될지, 그 일의 전후 사정까지 미리 알아버리는 고등한 비술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 한 육임가의 판단이 월등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임은 한 가지, 한 가지의 판단이 진검 승부에 해당됩니다. 고등한 육임을 해야만,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긴박한 정서를 꿰뚫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도마를 꺼내고, 집 파는 문제로 왔는데 10년 운이나 말하고 있다면, 그 선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늘을 대신 하는일」**을 하는 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남자」에 「우물 안의 고기와는 큰 것을 말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추위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육임과 일반 오행술과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고복자 효사」총재의 직접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 (지방) 기회가 될 것이므로, 오행가로서의 고등한 실력을 구비코져 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04년 10월 중 아래 일자 시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용 : 1백 5십만원 (교재「효사육임강의록」上(학습서) 下(활용서) 드립니다.)
- 학습기간 : 3개월 13주 65시간 집중 강의 (기초·기본 2시간, 본강의 3시간)

- 등록학당 안내
  - 육임학당 효사숙 제 9기 10월 8일 금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2-993-8680)
  - 육임학당 강남숙 제 3기 10월 9일 토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2-525-3039)
  - 육임학당 전주숙 제 5기 10월 17일 일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63-284-7714)
  - 육임학당 광주숙 제 5기 10월 18일 월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62-224-8680)
  - 육임학당 대전숙 제 2기 10월 12일 화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42-223-8680)
  - 육임학당 부산숙 제 6기 10월 13일 수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51-756-0141)
  - 육임학당 대구숙 제 6기 10월 14일 목요일 (개강) 까지 (문의전화 053-624-8680)

(위 강담숙은 비구니스님들께서만 수강하는 육임전문학당입니다.)

- 강 사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曉史
- 저 서 : ■ 「육임대정비법」 외 「효사육임천역집」 1~17권 (육임CD별도)
  - 월간 「천문역학六壬」 발행인 ■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 한국경제TV 「CEO제왕학」 육임강의 중